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김종대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1:39-56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복을 받은 자의 노래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2월 3일(대강절첫째)	12월 10일(대강절둘째)
김주연	전주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3) 어찌 이런 일이

본문 : 눅1:26-38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아진다는 조언을 듣고 봉사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지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 뿔다가 우리는 당혹스러워하며 성경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이야기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은 단지 저 대기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우주 공간을 넘어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지는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하늘 끝에서 우리가 서 있는 지구를 보면 작은 점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작은 뇌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런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모두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자 즉시로 화를 내면서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인간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한 결과이며, 그것이 믿음 없음으로 노출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질타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믿을 수 없었고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짧게 한 마디 던집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믿음 없음으로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